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08.13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2025년 상반기 EU 호라이즌 유럽 관련 주요 이슈(8.7)

- 2025년 상반기, 브뤼셀 연구혁신 생태계는 2027년 이후 EU 연구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의 향방을 둘러싼 논쟁으로 들끓었으나, 결국 입법 제안과 함께 '호라이즌 유럽 폐지'설은 진정. 예산은 1,750억 유로(이전 대비 두 배)로 제안되었으나 필라 2 예산의 상당 비중이 경쟁력 기금 하에서 집행될 예정
- 지난 1월 폴란드가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를 시작하며 과학 분야 AI 도입과 국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
-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미 연방기관 대규모 감원, 대학 통제 강화, 연구비 축소, 연구 주제 검열 등 반과학 행보가 이어짐
-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식량 봉쇄로 광범위한 기아 사태가 발생하며, 이스라엘의 호라이즌 유럽 가입 자격을 둘러싼 논쟁이 고조

○ 2025년 하반기 EU 연구정책 주요 이슈(8.7)

- 덴마크 EU 이사회 의장국은 연내 이사회 차원의 FP10 협상 진전을 목표로 하며, 연구장관 회의는 9월 30일과 12월 9일 개최 예정
- 3분기 중 집행위는 'AI in science(과학 분야 AI)', 'Apply AI(산업 적용 AI)', 'Data union(데이터 연합)' 등 AI 관련 세 가지 전략 발표 예정
- EU는 파산·노동·조세 등 핵심 영역에서 국경을 넘어 신속한 스케일업을 돕는 단일 규칙을 마련하고자 함. 유럽우주국(ESA)은 11월 26~27일 브레멘 장관이사회에서 차기 3개년 예산을 확정 예정. 또한 노르웨이, 체코,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에서 선거가 잇따라 실시됨
- (기타) ▲혁신가·연구자 대상 '유럽단일연구공간 법안(ERA Act)' 의견 수렴(8.7) ▲에너지 부문 디지털화·인공지능(AI) 전략 로드맵 의견 수렴 개시(8.7) ▲EU, 심혈관 및 양자 연구 의견수렴 실시(8.12) ▲기술 전문가 보고서, "유럽과 미국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AI 수용해야 해"(8.11)